

컬처 & 피플

시인 정호승

외로우세요?
외로우니까
사람입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언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수선화' 중)

정호승(64) 시인의 시는 노래다. 시를 읽으면 노래하듯 울게 된다. 곡조를 붙이면 하나의 서정적인 노래가 된다. 그의 시가 한국적 정서에 맞닿아 있는 까닭이다.

그의 시 '수선화에게'는 절창이다. 원조적으로 외로움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서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수선화에게"는 시처럼 외로움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입니다.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사람이니까 외로움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외로우니까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에 별다른 이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불면 비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면 파도가 치는 대로 자신만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부딪치는 외로움에 넘어지지 말고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최근 서울의 어느 카페에서 정호승 시인을 만났다. 서글서글한 미소와 다정다감한 어투는 고전적인 시인의 모습과는 다소 거리가 멀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젊은 머리가 잘 어울릴 만큼 자연스러웠고 유해보였다. 중후함보다는 친진함이, 반듯함보다는 겸허함이 배어 나왔다. 시는 시인을 닮는다는 말이 예에서도 통용되나 보았다.

"저는 늘 시에 감사하며 독자에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가 있었기에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며 또한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1973년에 대한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니 올해로 시를 쓴지 만 41년이 됩니다. 오랫동안 시업(詩業)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늘 감사하는 마음과 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져왔기 때문이죠."

시인의 중심에는 늘 시가 자리했다. 그리고 시의 중심에는 본질과 서정

“시는 인간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 모든 인간에게서 시를 봅니다”

이라는 두 개의 축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의 작품이 평이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것은 삶에 대한 성찰과 고통과 아픔까지도 감싸고 받아들이는 낮은 자세와 무관치 않다. 몇 해 전 기자는 정호승이라는 시인의 시를 실제적으로 느꼈던 적이 두어 번 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좀 강진 다산초당에 들렀을 때다. 산 아랫마을 굴동에서 다산 초당으로 오르다, 언덕길에 드리워진 수십 갈래의 뿌리를 보게 되었다. 무수히 많은 뿌리가 지상으로 뻗어 나와, 열리고 열린 '뿌리의 길'은 아름답고도 웅장했다. 아니 슬프기까지 했다.

"그 길의 나무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올라갔어도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은 뿌리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한몸을 이뤄 공동으로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함께 견디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합일의 정신을 '뿌리의 길'이라는 시로 표현했던 거지요."

그의 시에 담긴 빛나는 서정성, 삶에 대한 관조의 시선은 한 구절의 잠언을 읽는 것 같은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순천의 선암사 해우소에서도 그의 잠언 같은 시를 접할 수 있다. 어쩌면 탈속(脫俗)의 경계인 승선교보다 해우소(화장실)는 속인인 우리들에게 더 많은 깨달음을 주는 것인지 모른다.

"눈물이 나면 기차를 타고 선암사로 가라 / 선암사 해우소로 가서 실컷 울어라 / 해우소에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으면 / 죽은 소나무 뿌리가 기어 다니고 / 목어가 푸른 하늘을 날아다닌다" ('선암사' 중에서)

선암사의 해우소가 명소가 되어버린 건 전적으로 시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의 시가 다소 쉽다고 폄하하기도 한다. 80년대의 진영논리는 서정시를 경시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렇다며 오늘날의 시는 어떤가. 자의식이 과잉된 나머지 시인 혼자나 이해할 수 있는 시가 넘쳐난다. 더러는 현학적이며 폐쇄적이기까지 한 나머지 독자로부터 외면을 받기도 한다.

"돌아보면 저는 한 번도 특정한 시대에 앞장서 본 적이 없어요. 흑백논리가 횡행하던 시대에도 저는 그저 시를 쓰는 것이 제 나름의 행동이자 시대에 대한 복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시란 일상의 언어로 현실의 이야기를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는 1976년에 김명인, 김승희 시인들과 함께 '반시(反詩)'를 결성 쉬운 시를 쓰기로 작정한다. 그 때문이었을까. 이후 그의 시는 여러 가수들의 노래로 재탄생했다. 서정적이면서도 아름다운 가사가 주는 확장성은 장르를 초월한다. 시는 언어로 존재하지만 거기에 노래라는 옷을 입히면 감동의 결이 달라진다. 가수 안치환은 '풍경달다', '인생은 나에게 술 한잔 사주지 않았다'를 불렀고 이동원은 '이별노래'를 히트시켰다. 양희은은 '수선화에게'를 불러 시가 내재하는 위안과 치유의 힘을 보여주었다.

"시인은 시를 써야 시인입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시를 쓸 작정입니다. 시란 자기 자신과 한 시대를 이루는 인간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이니까요. 마더 테레사 수녀는 모든 인간에게서 신을 본다고 했습니다. 저의 경우는 모든 인간에게서 시(詩)를 본다고 말하고 싶네요."

/서울=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데

지난 6월 초 오전 10시, 파리 풍피두 센터를 찾은 기자는 예상치 못한 광경에 적잖이 당황했다. 전날 가이드가 일러준 대로 아침 일찍부터 서둘렀지만 이미 풍피두센터 앞 광장은 입장을 기다리는 수백 여 명의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하루 평균 방문객이 2만 5000여 명에 이르고 하더니 명성 그대로였다. 부지런을 떤 보람도(?) 없이 30여 분을 기다린 끝에 가까스로 입장할 수 있었다.

이처럼 '잘 나가는' 풍피두센터에게도 감추고 싶은 '흑역사'가 있다. 지난 1977년 '미술관도 되고 창조공간도 되는 열린 문화예술센터'

문화전당(문화전당) 프로젝트가 세상에 나올 당시,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이들 미술관을 벤치마킹 하기 위해 한동안 지역사회의 화두로 회자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주의 빌바오'를 꿈꿨던 시민들의 염원과 달리 문화전당이 지대로 들어서게 되면서 랜드마크 효과는 '희망사항'으로 끝나 버렸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화전당 주요 건물이 10월 완공된다. 지난 2003년 첫삽을 뜬 지 근 10년 만이다. 그런데 어쩌면 일인지 지역사회의 분위기는 기대 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큰 것 같다. 전당 콘텐

풍피두센터 vs 문화전당

를 내건 당시 조르주 풍피두 대통령의 뜻에 따라 건립됐지만 시대를 앞서가는 초현대식 건물컨셉으로 개관 초기 시민들에게 철저히 외면을 받았다. 배선, 냉난방, 배관 등 기능적 설비를 모두 건물 바깥으로 빼낸 '홍물스런' 외관과 콘텐츠 부족으로 하루 방문객이 100명에도 안되는 굴욕을 겪은 것이다.

하지만 1990년부터 차별화된 기획전과 프로그램을 선보이면서 파리의 아이콘다운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풍피두센터 주변에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갤러리, 아틀리에, 쇼핑매장, 휴식공간 등이 속속 동지를 틀면서 방문객을 뿔아 들어가는 프랑스 랜드마크로 변신했다. 지난해에만 650만 명이 다녀갈 정도다.

사실 풍피두센터나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은 광주 시민에게는 매우 낯익은 이름이다. 그도 그럴것이 지난 2002년 국립 아시아

츠의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주된 이유이지만 꼭 그 때문만은 아니다. 문화전당을 둘러싼 주변의 기반시설이 낙후돼 있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서다. 이리다간 자칫 전당이 거대한 섬으로 고립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풍피두센터와 빌바오 효과를 연구한 전문가들은 이들 미술관을 성공시킨 원동력은 도시의 크고 작은 인프라였다고 한다. 주변 산책로, 공원, 놀이터, 갤러리, 편리한 교통시설 등은 복합문화시설에 '날개'를 달아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광주도 '문화전당 효과'를 기대하려면 전당 발 문화에너지가 도시 전체로 퍼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주변'에 눈을 돌려야 한다. 건축물 하나가 관광객을 자석처럼 끌어들이 거라는 환상은 금물이다. 문화광주의 미래를 '전당 안'에서만 찾는 우를 범하지 말자.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인애복지관, 아동 미술대회

광주 남구 초등학생 대상

사회복지법인 인애동산 인애종합사회복지관이 '제1회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세상 만들기' 아동 미술대회를 개최한다.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미술대회는 남구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6학년

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작품을 다양성이 어우러진 아름답고 행복한 미래의 대한민국 모습 등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와 주제를 표현하면 된다.

작품 접수는 오는 10월15일까지다. 수상자에게는 광주시남구청장상(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2명), 인애종합사회복지관장상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수상자 발표는 10월22일이다.

문의 062-676-5087.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a TV show titled '남남남 북북북' (남남남 南男, 북북북 北女) on TV Joongwon. The ad features a couple riding a bicycle and a couple in a car. Text includes '남한 노총각과 북한 꽃미녀의 예측불허 결혼일기', '매주 금요일 밤 11시', and names '박수홍 ♥ 박수애' and '양준혁 ♥ 김은아'.